

해남군 '농업 살리기 원년' 선포

친환경 중심 675억 지원

해남군이 올해를 농업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친환경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군은 최근 농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 농업사업 99개 분야에 675억 원의 지원키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 70개 사업 450억원, 환경녹지 9개 사업 6억원, 농업기술센터 3개 사업 21억원, 농산물유통 13개 사업 43억원, 한국농촌공사 4개 사업 155억원 등이다.

군은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 ▲인삼 생산기반 구축사업 ▲조식료 생산장비지원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올해 15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인 3만3천475ha의 22%인 7천437ha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친환경농기자재 구입대금 140억원과 친환경인증취득수수료 6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함께 2009년도 신규 농림사업안을 확정하고 52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농림부에 신청했다.

2009년 신규 농림사업은 후계농업인육성, 영농규모화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폐비닐수거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분뇨처리시설, 경관림조성 등 자율사업 19개 158억원과 공공사업 18개 362억원 등이다.

김관석 해남군 친환경 농산과장은 "청정 해남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2010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대비해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국 최대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해남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영암왕인문화축제 보러 오세요"



영암군은 지난 8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신라현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장과 이종대 재경영암향우회장 등 축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4월 5일부터 개최되는 '2008 영암왕인문화축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영암군 제공>

광산구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 개소 100일만에 1만200여명 방문

개소 100일을 맞은 '광산구청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가 주민생활 속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삼성 흥플러스 하남점 2층에 문을 연 민원지원센터는 설·추석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자정까지 운영되며 인감증서와 납세

증명 등 팩스민원 320종과 부동산 등 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개소이후 현재까지 1만200여명이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1만5천500여건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문재춘 장흥군 녹지담당 대통령 표창 수상

문재춘 장흥군 환경산림과 녹지담당이 최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문씨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성공

적 추진과 친환경적인 산림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주민소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씨는 지난 82년 산림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전남도 유기농식품 66개 인증 전국 35% 차지 '최다'

전남도가 전국 친환경인증면적의 절반을 웃도는 6만5천여ha(53%)의 인증면적을 확보한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한 유기농식품에서도 전국 최대 인증을 획득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식품인증 받은 제품 187개 중 전남산은 66개 제품으로 35%를 차지, 전국 최대 인증 획득을 기록했다.

유기농식품인증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기재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인증을 획득해 녹

차 유기농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보성군 최명희씨의 경우 유기농차(우전)를 100g당 일반 제품보다 3만원이 높은 15만원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문판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기농품 분야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유기농식품 인증에 대한 지원과 유기농식품을 발육·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농식품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있으며 녹즙, 주스류, 녹차류, 분말류 등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강진 샘물공장·옹기공장 선다

샘물공장 - 강진읍 임천리에 70억 투입

옹기공장 - 칠량면 봉황리에 20억 들여

'청정골' 강진군에 먹는 샘물공장 및 옹기제조 공장이 들어선다.

강진군은 지난 7일 ㈜두류CT 및 강진옹기㈜와 샘물공장과 옹기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자골 화수분 샘물' 브랜드로 출시될 샘물공장은 임천리 일대 부지 5만1천여㎡에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돼 생수제조시설과 저장시설 등이 들어서며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옹기공장은 전통옹기로 유명한 봉황리에 건립되며 5천여㎡ 부지에 20억원을 들여 성형과 가마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옹기제조공장 부지는 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향토산업 육성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제품에 밀린 전통 옹기 장점을 되살려 도시민에게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생수와 옹기 공장이 완공되면 각각

380억원과 70억원의 연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들 두 기업은 강진의 맑고 깨끗한 청정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데다 청자의 고장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며 "건설한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두류CT는 서울 소재 관광개발사업 전문회사이며, 강진옹기㈜는 행남자기 협력업체로 '감치냉장고 사각항아리' 등을 개발한 중견업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완도군 신학권역에 70억원 투입 '전통 문화·생태관광 농촌' 개발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와 원동리·대문리 등 신학권역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완도군은 오는 2012년까지 신학권역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전통과 문화·생태관광의 농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군은 이곳에 신바람 주말장터, 군

외천 물놀이 공원, 마을 숲 체험공원을 조성하고 전통우물 및 빨래터 복원, 마을 정자시설 확충과 함께 해변관광 자전거도로도 개설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5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와 컨소시엄을 구성, 주민설명회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외면 신학권역은 세계적 상록활엽 수목원인 1천200ha규모의 완도수목원과 국내 최대의 동백나무 군락지(100ha), 천연기념물 428호인 모감주나무 군락지, TV드라마 세트장이 위치해 있어 이들 지역과 연계, 관광권을 형성할 경우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4년부터 생활권이 같은 3~5개 마을의 지역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나비엑스포·람사르총회 성공 개최" 함평군·경남 창녕군 공동 노력

교류협약 체결

오는 10월 말 람사르(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총회가 열리는 경남 창녕군과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는 함평군이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석형 함평군수와 김충식 창녕군수는 지난 6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우호증진 교류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두 자치단체는 행정·문화·경제·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 축제·문화 콘텐츠 교환과 전시행사,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산업 촉진에도 적극 협력키

로 했다.

특히 두 자치단체장은 오는 10월 창녕군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와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확고한 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환경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람사르 총회가 열리는 창녕군과 나비·곤충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친환경 엑스포를 치르는 함평군이 만났다"며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자치단체 간 교류협약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화순군, 28일까지 접수

화순군이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08년 개별주택가격(안)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 5천323호에 대해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검증을 완료한

후 최근 우편으로 개별통지했다.

주택소유자가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부과담당)나 읍·면 민원실에 개별주택 가격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 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061-370-1295) /화순=조성수기자 css@